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K리그 광주·서울 엇갈린 운명

광주, 주앙파울로·유종현 7라운드 베스트 11에

서울, 패배·팀 부진 책임지고 황보관 감독 사퇴

주앙파울로

유종현

K리그 7라운드 경기에 '신생팀' 광주와 '디펜딩 챔피언' 서울의 운명이 엇갈렸다.

26일 프로축구 FC 서울의 황보관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 24일 광주와의 정규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던 황보관 감독이 팀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독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같은 날 승자 광주는 K리그 2011 7라운드 베스트 11에 공격수 주앙파울로와 수비수 유종현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경사를 맞았다.

24일 경기가 두 팀의 운명을 갈랐다.

광주와 서울은 이날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정규리그 7라운드 경기를 가졌다. 광주는 전반 34분 터진 주앙파울로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면서 6경기 만에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반면 서울은 시즌 3패째를 기록하며 1승3무3패의 성적으로 14위까지 추락했다.

광주에게는 천금같은 승리였다.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광주는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최근 6경기에서 1무5패로 부진했다.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수비 조직력까지 함께 무너지는 등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었다. 하지만 큰 위기 상황에서 서울이라는 대어를 낚으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또 공격수 주앙파울로는 K리그 두 경기 연속골로 서울을 무너뜨리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K리그 2011 7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공중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팀의 승리를 지킨 유종현도 수비수 부문에 선정되며 광주는 모처럼 활짝 웃었다.

광주의 일격을 받은 서울은 사령탑 퇴진이라는 운명을 맞고 말았다.

이번 시즌부터 '디펜딩 챔피언' 서울을 지휘한 황보관 감독은 광주에 덜미를 잡히는 등 K리그에서 1승3무3패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나고야에 패하는 등 최근 4경기에서 2무2패의 성적을 내면서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황보관 감독은 지난해 12월28일 서울의 새 사령탑에 오른 지 118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역대 두 번째 단명 감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은 당분간 최용수 수석코치 체제로 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최용수 감독대행은 오는 30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신고식을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맙다 비야"

KIA -SK 경기 우천 취소

숨가쁜 한 주를 앞둔 호랑이들이 봄비에 한숨 쉬어갔다.

26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다. 동반 부상으로 전력 차질이 빚어진 KIA에게는 '단비'다.

KIA는 시즌 개막과 함께 거침없는 공격력을 과시해 왔지만 최근 타선의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나지완·이용규의 공백과 함께 이어진 강행군에 안치홍·김상현·이범호 등 주축 선수들이 발목과 허리·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는 등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졌다. 또 긴박한 승부가 계속되면서 야수진의 피로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SK 그리고 롯데와의 대결을 앞둔 이번 주 마땅한 전력 상승 요인도 없는 만큼 KIA 타선에는 반가운 비가 됐다.

봄비에 등판이 하루 미뤄졌지만 로페즈와 김광현은 27일 마운드에 올라 선발 맞대결을 벌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안! 고의는 아니야"

한화의 한상훈(오른쪽)이 26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경기에서 1회초 1사1루에 2루 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된 후 머리를 부딪힌 넥센 2루수 김민성에게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연아-마오 '리턴매치'

13개월만에 … 29일 밤 세계선수권 한판 대결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29일 밤 일본의 아사다 마오(21)와 13개월 만에 빙판위에서 만난다.

김연아의 복귀전인 201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는 여자 싱글 최대의 '빅매치'로 관심을 끈다. 유년기부터 우승을 다투곤 했던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가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다시 맞붙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 전까지 올 시즌 여자 피겨는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여왕 김연아와 동메달리스트 조애니 로셰트(캐나다)가 나란히 그랑프리 시리즈 불참을 선언한데다 은메달리스트 아사다까지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아무도 최고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노비스(13세 이하)와 주니어 시절부터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을 나눠 갖는 등 경쟁을 계속한 김연아와 아사다는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이후에도 매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양보 없는 라이벌 대결을 펼치며 빙판을 뜨겁게 달궈 왔다.

새 시즌 마지막 대회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는 다시 정상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

기술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김연아는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0.1점)를 앞세워 2009년 이후 2년 만의 세계 정상 정복에 나서고, 아사다 역시 전매특허인 트리플 악셀(기본점 8.5점)을 주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여유를 찾은 김연아는 기술보다는 예술성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아사다는 트리플 악셀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 왔다.

두 선수 모두 불안한 부분은 있다.

김연아가 그랑프리 시리즈를 완전히 건너뛰면서 기술을 세부적으로 다듬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지만 24일 훈련에서 완벽한 쇼트프로그램 연기를 선보여 우려를 씻어냈다.

아사다는 점프 균형이 무너지면서 두 차례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8위와 5위라는 결과를 낸 것이 마음에 걸린다.

김연아와 아사다 모두 자국에 희망을 안겨 주려 한다는 점에서 처지가 비슷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홍보대사와 선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김연아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유치활동에도 힘을 보탤 각오다. /연합뉴스

SBS 피겨 선수권대회 생중계

SBS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메가 스포트 아레나에서 열리는 201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를 위성 생중계한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출전하는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을 비롯해 남자 싱글과 페어, 아이스댄스도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로 방송할 계획이다.

김연아가 출전하는 여자 쇼트 경기는 29일 오후 8시50분부터, 여자 프리 경기는 30일 오후 8시40분부터 각각 중계한다. /연합뉴스

■ 스포츠 브리핑

김태균, 이승엽에 판정승

김태균(29·지바 롯데)이 선배 이승엽(35·오릭스) 앞에서 결승 2루타를 터뜨리고 올해 일본 무대에서 펼친 한국인 타자 간 첫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김태균은 26일 일본 지바현 QVC 마린필드에서 계속된 오릭스와의 홈경기에서 7번 타자 1루수로 출장, 4회 대량 득점의 물꼬를 트는 2루타를 때리는 등 3타수2안타를 쳐 타점 1개를 수확했다. 팀은 6-0으로 승리를 거뒀다.

23일 소프트뱅크와의 경기에 이어 두 경기 만에 타점을 보탠 김태균은 시즌 5타점째를 기록했다. 김태균의 타율은 0.243에서 0.275(40타수11안타)로 올랐다.

6번 타자 1루수로 나선 이승엽도 24일 세이부와의 경기에 이어 두 경기 연속 큼지막한 2루타를 때렸지만 동료의 지원이 없어 아쉽게 돌아섰다. /연합뉴스

김재수 히말라야 14좌 완등

김재수(51·코오롱스포츠) 대장이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산악인이 됐다.

코오롱스포츠는 김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가 26일 오후 1시50분(현지시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대장은 이날 새벽 0시20분 등반을 시작해 13시간30분 만에 정상 등정에 성공했고, 위성전화로 이 소식을 코오롱스포츠 측에 알렸다.

지금까지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를 완등한 한국 산악인으로는 엄홍길, 박영석, 한왕용, 오은선 씨 등 4명이 있다.

김 대장은 "등반 파트너였던 고미영 씨가 못 다한 14좌 완등의 꿈을 마침내 이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대장은 등반 파트너로서 고 씨와 히말라야의 11개 봉우리를 함께 올랐다. /연합뉴스